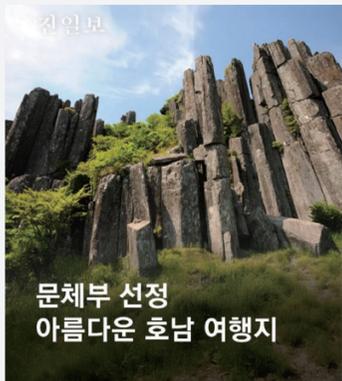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광주 무등산·ACC '한국관광 100선' 선정



문체부 선정 아름다운 호남 여행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했다. 광주를 포함한 호남 지역 장소가 다수 포함됐는데, 광주에서는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과 다양한 등산 코스를 즐길 수 있는 무등산국립공

원과 독창적인 건축물 속 다채로운 예술 전시가 펼쳐지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매화 군락지와 매실이 담긴 2000여개의 향아리가 장관을 이루는 광양 매화마을과 청매실농원, 아름다운 갈대밭과 S자 수로가 만들어 내는 경관을 뽐내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100년 역사 문화와 다도해 풍경을 간직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해상 케이블카 등이 선정됐다.

전남에 '세계 최대' AI데이터센터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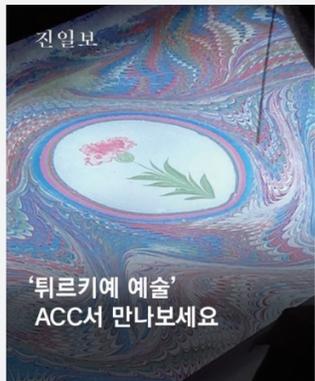


세계 최대 AI센터 전남에 들어선다

전남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가 건립된다. 광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엔비디아 H100 등 최신 AI 반도체까지 확보하면서 AI 연구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3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전남에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보다 3배 큰 규모다. 미국 투자그룹 '스톡 팜 로드'가 주도하고 LG 창업주 손자인 브라이언 구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광주·전남은 글로벌 AI 데이터 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열렸다. AI 스타트업·연구소의 지역 이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튀르키예 예술 무료 체험



'튀르키예 예술' ACC서 만나보세요

아시아문화전당(@asianculturecenter)에서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해볼 수 있는 '2025 ACC 아시아 예술체험'이 진행된다. 첫 번째 강좌는 물 위에 그림을 그리는 튀르키예 예술 기법이자 2014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

된 '에브루(Ebru) 아트'다. 튀르키예에서 온 에브루 작가가 직접 진행해 더욱 생동감 있게 현지 예술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체험은 3월7일, 4월4일, 11일 오후 2시~4시, 오후 7시~9시 문화정보원 B2 문화교육실1에서 진행되며 각 회차마다 2월20일~3월6일, 3월20일~4월3일, 3월27일~4월10일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무료다.

조선대 일부 학생, '尹 탄핵 반대' 시국선언 예고



"광주정신 잊었나" 조선대생 탄핵 반대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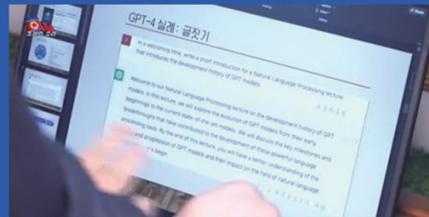
조선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예고됐다. 지난 19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조선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 참여 안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들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광주 조선대 학우들'이라고 설명한 이들은 오는 28일 본관 중앙 입구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선대 재학생·졸업생들은 "학교의 저항 역사와 광주정신을 잊은 행동에 매우 안타깝다", "조선대라는 이름을 앞세우지 말길 바란다" 등 반응을 보였다. 조선대는 1980년 5·18민주화 운동 시기 전남대학교와 함께 학생 시위를 주도하는 등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nilbo.com



300자로 hip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김일성종합대 연구자료에 나온 챗GPT. 연합뉴스



북한서도 '챗GPT' 열풍? 실제 활용은 미지수

북한 교육 현장에서 미국의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가 활용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소리'는 지난 21일 "인공지능 부문의 실력가 집단"이라며 김일성종합대학교의 인공지능 기술연구소를 소개했다. 이들이 연구하는 자료를 살펴보면 'GPT-4 실례: 글짓기'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구 아래 사례에는 영어로 글이 작성돼 있는데, 챗GPT에 원하는 문장을 써달라고 입력하면 이에 맞춰 답변이 나오는 기능을 설명한 자료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들이 챗GPT를 사용하면서 연구하고 있을지는 미지수다. 챗GPT를 쓰기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데, 북한 내에서는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게 제한적이어서다. 한철진 김일성대 박사는 조선의 소리에 "선진 기술을 깊이 있게 습득할 수 있는 모리야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대적 관계인 미국에서 만들었더라도 선진 국가의 AI 기술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 챗GPT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북한은 이미 AI 기술을 해킹 등 공작을 정교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구글위협정보그룹(GTIG)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북한이 구글의 AI '제미니'를 활용해 주한미군의 작전 정보를 탐색하거나 암호화해 및 금융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해킹을 시도했다고 분석했다.

#SnackNews #북한챗GPT활용 #나다운기자 #박지은편집디자인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